릴레이 수행일기 〈上〉



황성수

(주)한국가스기술공업 통영기지사업소장

불연(佛緣)을 맺기 전,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절하고 탑을 돌면서 기도하는 기복신앙 쯤으로 알았던 불교에, 살아가는 법과 사후의 법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예전에도 <금강경> 같은 불경을 이따금 볼 기회가 있었으나 크게 와 닿는 그 무언가는 없었고, 그저 위대한 철학서적 하나쯤으로 생각했었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설사 불법을 만났다손 치더라도 곧 잊어버리고 말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초를 겪지 않았을까 한다.

업장 녹이는 연습통해 마음에 여유

잘못되고 후회스런 기억들 지워내

불법을 만난 그날은 밤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켰다. 이 생에서 다 깨치지 못한다면 또 다음 생을 받아서 깨치고, 그래도 못하면 또 그 다음 생에서 꼭 깨치고 말겠다던 어느 젊은 스님의 이야기를 밤새 찾아 다녔다.

그러다가 조사 어록을 만났고 <육조단경>도 보게 되었다.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그렇게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시대 문명의 이기가 너무나 고마웠다. 그러나 내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나는 발심자로서 쉽게 설명한 경전 해설이 필요했으며 고충상담을 통한 각성이 간절했다.

그럴 때 일간 인터넷 현대불교인 '붓다뉴스'와 그 안에 있는 '김재경 기자의 구도역정(求道歷程)'을 만났다. 9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길을 묻는이에게'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었고 대행(안양 한마음선원장) 큰스님께서 강조하신대로, '몰락주인공에게 맡기고 그저 가만히 바라보라'는 말씀을 실천강목으로 얻었다. '구도역정' 커뮤니티에는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이들이 다양한 방편과 경험들을 올려 놓고 있었다. 그들이 선지식인지 아닌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고민하며 걸어온 길이 내게는 곧 스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수행을 시작하려는 내게는 갈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선지식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누가 선지식인 줄 알고 찾는단 말인가. 혹여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을 준비나 돼 있기나 한지 참으로 막막했다. 물어 물어서 선지식을 알아내기는 했으나 만나 뵈려는 애초의 계획은 접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상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선지식을 만나본 들 무슨 대수가 있겠는가. 내게 상수가 있다면 우선 내 마음부터 가지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온 내 인생은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 때로는 미련하고 또 무지하며 언제는 또 악날하고 야비하게 살아온 것 같다. 내가 법을 만나서 내 자신을 반추해보는 계기가 없었다면 나머지 이생의 삶도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하니 참으로 끔찍했다. 나는 내게 기억된 삶 중에서 잘못된 삶과 후회스런 삶, 그리고 용서해 줄 삶을 지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계속)

"망상 떨치고 지금 여기서 바로 보라"

지유 스님의 禪공부 지도

화개선원에서 16년째 법문

살아있는 활구(活句)참선

생활속 방하착 공부 강조



◇17일 화개선원 정기법회에서 설법하는 지유스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8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자락 고지대에 자리잡은 화개선원(원장 상광) 대웅전. 법당의 절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입정해있던 우바새, 우바이 60여명은 상광 스님의 집전으로 <천수경> 독경에 들어갔다.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율의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예불을 마친 불자들은 모두 선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16년 째 매달 열리는 화개선원 조실 지유 스님의 '안심(安心) 법문'을 듣기 위해서다.

신도들이 선방의 자리를 정돈하자, 곧바로 화개선원 조실 지유 스님이 법단에 등단한다. 청법가가 끝나자 지유 스님은 "그럼 또 입정(入定)을 합니다"라는 말로 법문을 열었다. "바깥을 향해 일어났던 생각들을 쉬고, 보고 있는 자체, 듣고 있는 자체, 생각하고 있는 자체를 돌아보는 모습을 입정이라 합니다."

지유 스님은 입정하기에 앞서 참선하는 이유를 자상히 설명했다. 수행의 목적과 원리도 모른 채 무작정 앉아서 허송세월하는 선 수행자들이 적지 않은 풍토에서 스님의 선(禪) 법문은 살아있는 활구(活句) 법문으로 다가온다.

"이러쿵 저러쿵 잡다한 생각을 다 놓고 있는 그대로 보라." "모든 생각을 놓아라. 깨달음이란 생각조차 놔버려라." "진짜 공부는 근본자리를 발견하고 그걸 일상생활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스님의 이어지는 법문들은 일체 '화두(話頭)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조사선의 핵심을 담은 마음 법문이었다. "어떤 것이 마음인가. 보고 있는 놈이니라. 듣고 있는 놈이니라. 생각하고 있는 놈이니라. '생각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놔버려라 이겁니다. 이 놈(본래 자기)은 생각을 놔버려야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망념과 혼침 없이 안과 밖을 바로 보라"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지유 스님은 "깨달으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헐떡거리고 헤매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갖 유위적(有爲的)인 '애씀'이 아니라 그 반대의 무위적(無爲的)인 '닦음이 없이 닦는'(無修之修) 공부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의 공부법은 고요한 좌선수행으로 일관하는 '묵(默)'과 마음으로는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조(照)'를 의미하는 묵조선(默照禪)과 맥이 닿아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 일색의 배타적 풍토로 인해,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없이 '삿된 선(邪禪)'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지만, 원래 묵조선은 간화선과 더불어 선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던 선법의 하나다. 중국 송대의 굉지정각(宏智正覺, 1091~1157) 선사에 의해 형성되고 체계화됐지만 연원은 인도의 관법(위빠사나)과 달마와 혜능 선사의 좌선관 및 선수행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일상행위 그대로의 좌선이 진정한 좌선인 이유는 그 바탕에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본각(本覺)' 사상이 깔려 있다.

화개선원의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10여년 이상씩 선을 공부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매달 안동에서 법회에 참석하는 하종성(60) 신도회장과 청주에서 공부하러 오는 이제지(39) 청년회장 등 구도열에 넘치는 불자들은 생활속에서 방하착(放下着) 공부를 하며 화개선원의 수행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16년 동안 매달 빠짐 없이 지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활선을 실천해 온 자광안(48, 서울 잠실) 보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마음 분별에 집착되지 말고 혼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 자리가 바로 무심(無心)이라는 큰스님 말씀에 따라 공부하다 보니, 일상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들이 공부이며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밝히는 재료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화개선원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 지유 스님의 법문과 함께 원장 상광 스님이 지도하는 정기법회도 열고 있다. 상광 스님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법문과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12시 유식 논강, 일요일 오전 4~6시 예불 및 좌선을 지도하고 있다. (031)591-7744

남양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금강경독송회 전국 통합철야 법회

국내외 법당의 재가불자 500여명 참석



◇16~17일 경주에서 열린 금강경독송회 통합법회.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지난 8월 16~17일 전국 통합철야법회를 경주도량에서 봉행했다.

전국 각 지역 법당과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지의 해외법당의 재가불자 500여명이 모인 이 법회는 김재웅 지도법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금강경> 7독과 정진, 그리고 각 법당에서 공부해온 재가불자들의 공부 발표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재웅 법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닦는 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면서 생활 속에 부딪치는 온갖 장애들을 공부삼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김 법사는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고 공경심을 내면 스트레스가 없이 넘어가는데, 전생에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 불편함은 끝이 없는 것"이라며 "받을 것은 받으면서 참고 자제하고 견디자"고 말했다.

이번 법회 중에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공급해주기 위한 모금 행사도 열려 회원들의 동체대비심을 나누기도 했다. (02)742-0172 김재경 기자

청봉스님, 법기회 수행법 비판서 발간

선에 대한 바른 안목 갖는데 주력

극락선원(cafe.daum.net/buddhajukbi) 회주 청봉 스님은 최근 법기회 지도법사인 강정진 거사의 <영원한 대자유인>을 비판한 책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허구성을 지적함>(경서원)을 펴냈다.

모두 33장에 걸쳐 법기회 수행법에 대한 선리적(禪理的) 비평을 시도하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수행법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선(禪)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활발한 선문답 및 점검 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부록에 '법거량 마당'을 게재했다. 청봉 스님은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선가의 법거량 문화가 복원되길 바라고, 법기회의 반론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金烏불상 "천년의 풍경"



기존풍경에서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내구성이 각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수명이 짧고
일반주물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오불상은!!

금오 불상 풍경의 특징

자체 합금하여 재질의 순도가 높아 소리가 맑고 맥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결부위를 스텐 및 특수주물로 제작하여 물고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반 영구적 입니다.
용쪼각의 최고 권위자가 쪼각하여 섬세하고 기품있는 외형은 풍경중에 백미이며 금오불상에서만 유일하게 제작합니다.

판매금액은 百萬원이나 기존 풍경 반납시 **1set에 800,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납된 풍경은 군법당 및 소규모 사찰에 무료 시주됩니다.)

풍경제원 ▶ 높이 : 22cm (용두 4cm)
▶ 넓이 : 14.7cm
▶ 무게 : 2.6kg
▶ 재질 : 동 98%, 실리콘 1.8%, 기타 0.2%

전화번호 032)672-3136, 011-412-3136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701-01-187922 예금주 이성건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낙원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치단 저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